

# 발간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가면서 어지러이 걷지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는 불교신문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서산대사의 가르침이 담긴 이 한시(漢詩)처럼 깨끗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교신문 50년사(史)는 이 여정의 기록이며 온고지신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문이 창간된 1960년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청담대중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식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도외시 되고, 서구의 정신문화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충돌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불교신문은 중앙종무행정을 깊은 산속 암자에까지 전하고, 사찰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1600년 전통의 불교 사상과 문화를 사회에 알리고 불법을 외호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불교신문의 지난 50년 세월속에는 종단과 사회의 고난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종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불교신문 또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의 격동과 혼란으로 한때 신문 발행을 중단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론직필을 통해 교계를 일깨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겠다는 정신은 면면히 흘러왔습니다. 청담 대종사께서 창간호에 남긴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전해온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로 인해 곤혹을 치워야 했던 주필 법정스님,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일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송산스님, 아름다운 문학으로 우리의 말과 사상이 고아함을 세계에 알린 고은 전 주필 등을 통해 그

러한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재운, 목정배 교수님을 비롯해 불교신문의 인재들은 불교계를 발전시키고 시대에 앞장서왔습니다. 그 근저에는 민족과 불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확고한 신념과 사부대중의 변함없는 애정이 고여 있습니다.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언론의 환경도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TV에 이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불교신문의 책임감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부대중에게 단편적이고 사실에서 벗어난 정보를 지양하고, 바르게 불교와 사회를 보는 지혜(正見)를 전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붕괴되고 무한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지구는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미래의 인류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각 매체마다 넘쳐나지만 그 대안은 좀처럼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불교가 지켜온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유용한 미래가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르게 선도할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불교신문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날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생명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가치를 모든이에게 전달할 책임이 바로 불교신문에 있습니다.

‘한 장의 불교신문은 한 사람의 포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문서포교는 아직 불교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문서포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불교신문입니다. 사부대중께서 불교신문을 통해 포교에 가일층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교신문이 창간되지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50년의 세월을 바라보며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변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교신문에 대한 전 종도들의 애정과 관심을 거듭 당부드리며, 반세기의 역사를 이 책에 남기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